

# 유치원 입학 “하늘의 별따기”...학부모들 ‘한숨’

### 나주혁신도시 유치원 6곳 뿐...학령인구 1914명 중 절반도 수용 못해 금천·산포 등으로 유치원 원정...교육여건 부족에 이사 고민까지

빛가람혁신도시가 극심한 유치원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내 유치원 수용인원은 학령인구의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학부모들은 차로 15분 거리 외지로 아이들을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혁신도시 유치원 부족 문제는 10여 년 전부터 이어져 온 문제라는 점에서, 교육당국과 나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월 나주시와 나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혁신도시 내 운영 중인 유치원은 총 6곳이다. 혁신도시 조성이 완료됐던 지난 2014년 들어선 공립 단설 유치원인 한아름 유치원을 시작으로, 2018년을 제외하고 지난 2020년까지 매년 1곳 씩

증설돼 현재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현재 6곳의 유치원으로는 유치원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인구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3만9903명으로 전년(3만9137명) 대비 766명 늘었다. 특히 광주시, 나주 구도심 등 주변 도시의 젊은 부부들이 혁신도시로 유입되면서 유치원 학령인구(5~7세)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혁신도시 내 유치원 학령인구는 1914명, 그러나 현재 유치원 6곳의 수용인원은 962명에 불과하다. 어린이집을 떠날 나이인 만 5세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이를 유치원으로 진학 시키고 싶어도 보내지 못하는 상태다. 절반만 유치원에 갈 수 있는 상황에서, 결국 유치원 선발 추첨에 떨어진 학부모들은 혁신도시에서 자차로 약 15분 떨어진 산포·금천면 소재의 유치원에 아이를 등원시키거나, 초등학교 진학 전까지 집 근처의 어린이집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결되지 않는 유치원 부족 문제로 혁신도시에 정착한 젊은 부부들은 가까운 광주시 등 정주 여건이 좋은 도시로 떠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학부모 정모(여·39) 씨는 “지난 2017년 혁신도시에 신혼집을 차리면서 이미 유치원 부족 문제는 인지하고 있었다”며 “지난해 큰 아이가 유치원에 선발되지 못해 어린이집에 다니게 됐는데, 올해 작은 아이도 선발되지 못했다. 애들을 위해서라도 진정이 있는 광주로 다시 이사를 해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혁신도시 유치원 부족 문제는 혁신도시 이주

가 본격 시작된 지난 2015년부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유치원 부족으로 새로 등지를 둔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요청이 이어졌고, 나주시와 나주교육지원청은 지난 2017년 ‘혁신도시 내 유치원 설립 기반 구축 협약’을 맺고 2020년까지 유치원 4개소를 증설해 총 7개소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당초 약속된 7곳이 아닌 6곳에 그치고 있어, 턱없이 모자란 유치원 수에 학부모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지난해 이 같은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소상공인 연합회 나주지회와 KPX서비스원, 한전CSC 등은 한전 사거리, 한전 KDN 사거리 등 4곳에 ‘빛가람동 유치원 부족 문제 해결을 촉구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혁신도시 학부모들이 소통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에는 “지난해 단설 유치원 선정에 떨어지고, 나주시 홈페이지 내 ‘나주시장에게 바란다’에 게시글을 썼지만 ‘유치원이 모자라지 않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아이들 유치원 선정에 대기번호를 받아 남편이 그냥 광주로 나가자고 했다” 등 유치원 부족으로 인한 불만의 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또 다른 혁신도시 학부모는 “직장 때문에 혁신도시로 이주해 온 것도 있다. 하지만 이주를 요구하기만 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지 않고 있어 화가 난다”며 “가뜩이나 맞벌이로 자녀 양육이 힘겨운데, 유치원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으니 이사를 생각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나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나주교육지원청에서는 혁신도시 내 유아 수용 시설을 어린이집까지 포함하면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2026년까지 유치원 증설 계획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한전KPS, 원전수출 대비 품질경영 전략목표 점검

### 품질부서장·담당자 전략회의 'ISO 19443' 인증 취득 추진 등

한전KPS(사장 김홍연)는 '2024년도 품질부서장 및 담당자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품질경영시스템 국제표준 달성과 올해 핵심 품질경영 전략목표 점검을 위한 것으로, 나주시 빛가람동 본사 빛가람홀에서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진행됐다. 회의에는 전국 사업소 품질담당 대표자 70여명이 참석했으며 ▲2023년도 품질 이슈 개선방안 및 2024년도 주요 품질업무 공유 ▲품질검사자 양성 계획 및 품질비용 집행 개선사항 검토 ▲품질분임조 활동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체코, 영국, 폴란드 등 해외원전 수주 경쟁이 활발한 가운데, 국제 원자력 공급망 품질경영 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19443' 취득 추진 등을



해 핵심 품질경영 전략목표를 점검했다. 또 회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품질경영 수준의 진단과 품질비용 관리'를 주제로 외부전문가의 강의를 청강하고, 각 발전원 별 세미나를 개최해 사업소 경험 및 우수사례 발표에 이어 품질보증활동 제고를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전호광 한전KPS 원자력사업본부장은 “한전

KPS가 변화하는 에너지 산업과 경쟁기업들 속에서 세계 최고의 전력설비 정비산업 브랜드 플랫폼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품질 경쟁력이 중요한 시점이다”며 “개방되는 전 세계 발전정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한 품질활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한전, 전국 사업소 대상 'CEO 현장 소통설명회'

### 경영위기 극복 등 논의

김동철 한국전력공사(한전) 사장이 5일부터 한전 광주전남본부와 담당지사를 시작으로 전국 단위 'CEO 현장 소통설명회'를 시작했다. 이번 설명회는 한전의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에너지 기업을 선도하기 위해 내부역량 결집 및 변화·혁신에 대한 임직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한전 광주전남본부 및 담당지사에서 열린 첫 설명회에서 김 사장은 직접 재무정상화 조기달성 및 기업체질 혁신,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한 주요 업무추진 방향성을 공유했다. 이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직원들의 핵심 현안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과 함께 자유토의를 진행했다. 김동철 사장은 “현재 한전에는 직원들의 주인의식이 가장 필요한 요소다. 주인의식을 갖고 전 임직원이 한데 뭉쳐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요구에 맞춰 한전의 내부개혁 및 지구노력에 대해 본사부터 사업소까지 신속히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건전화·혁신계획을 비롯해 경영정상화 및 전력망 적기 건설·고객서비스 혁신 등 다양한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한전KDN, 노사합동 무사고 안전 결의행사

### 안전 작업환경 조성 다짐 등

한전KDN은 5일 나주시 빛가람동 본사 빛가람홀에서 '노사합동 무사고 안전 결의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한전KDN의 안전경영 방침 및 임직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장현 한전KDN 사장과 박종섭 한전KDN 노조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내 방송망을 통해 전국

실시간 송출로 진행됐다. 행사는 전국 사업소 직원들이 직접 참여 및 촬영한 현장 안전구호를 외치는 영상 상영으로 시작했다. 이어 직원 대표의 결의문 선서를 통해 ▲안전경영 최우선 가치 인식 및 자율적인 안전문화 정착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안전 규정 및 절차 준수를 다짐했다. 또 안전 전문가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특강도

진행됐다. 한창균 한국안전보건협회 팀장은 특강을 통해 “안전에 대한 사전점검 및 아차사고의 위험성 예방이 중요하다”며 “유사시 현장 작업자는 작업중지 요청을 적극 실시하고, 경영진 역시 지속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장현 한전KDN 사장은 “오늘 행사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 안전 실천이 지켜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안전에 대한 결의가 행사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실천까지 이어져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을 당부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aT, 농수산물식품산업 발전 위한 현장경영 나서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aT) 김춘진 사장은 지난달 28일 농수산물식품산업 현황을 방문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김 사장은 남원시 소재의 만두·볶음밥 가공 수출업체인 ㈜지엠에프(대표 김호수)를 방문해 생산시설을 확인하고, 주요 수출 품목들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무주군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포럼을 찾아 홍삼 조제품 등 건강기능식품들의 수출 애로 사항을 청취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한편, 같은 날 김 사장은 남원시청과 장수군청에도 방문해 지역농산물 경쟁력 향상 및 국내외 판로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